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공모전 단편 부문 본심에 오른 총 16편의 후보작들은 ‘지금, 여기’의 이야기와 관심사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행하는 장르, 스타일이나 가장 핫한 제작 테크놀로지에 안주하 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이슈를 저마다의 감수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만의 독창성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절반의 작품을 건져 올리고, 나머지 절반의 작품을 놓아 버릴 때에는 참여한 평가위원 각자의 고민과 갈등이 함께 하고, 이를 다른 이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얼마나 독창적인가? 정말로, 과연, 얼마나?
2.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인가? 어떻게?
3. 그리고 얼마만큼 세상이 화답할 것인가? 부디!

본심에서 살펴본 기획개발안은 이미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미학적 성과를 이룬 창작자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미 선보인 젊은 창작자들의 것입니다. 이들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 기획개발안은 기존의 자신에 머물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내닫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새로운 시선을 좇고,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 평가에서 끊임없이 되묻게 된 것은 ‘실현 가능한 기획’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문서 형식의 과제계획서라는 봉인 상태에서 깨어나 실제 제작과 완성, 결과물의 공개를 통해 오늘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매력과 감동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